

이-박 '투톱' 후지쓰배 10연패 믿는다

<창호>

<영훈>

2년여 침묵에 '건강이상說' 까지

이창호, 우려 씻고 재도약 계기로

한국과 일본 최정예 기사들이 자웅을 가리는 제2회 후지쓰배 4강전이 7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 관전포인트는 한국이 10연패 대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와 후지쓰배를 지지대로 도약을 다짐하는 이창호, 박영훈의 선전 여부.

우선 '한국의 10연패' 전망이 밝다는 게 국내 바둑계의 종론이다. 단일대회 10연패는 세계 대회사상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지만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흘을 끝지 못하고, 권세도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후지쓰배를 휘둘러하고 있는 한국의 위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지난 98년 이창호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우승 행진은 지난 해 박정상까지 9년 동안 도도한 흐름을 형성했다.

4강전에 나선 이창호와 박영훈이 무엇보다 듣든하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박정상이 낙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마겼지만, 이창호-박영훈 '투톱'이 '대업'을 달성할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같은 진단의 배경에는 이번 대회에 나서는 '이-박'의 남다른 출사표가 있다.

세계 최다 우승(22회)을 차지한 이창호는 2005년 3월 제2회 춘란배 제페아후 2년 넘도록 단 한계의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하는 등

흉년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무대 5관왕이었지만 현재 왕위와 전자랜드杯 2개뿐이다.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배수진을 친다. 국제 대회 우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준결승 상대인 장수 9단에게 3승2패로 앞서고 있는 전황도 밭결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기성 3연패 불구 '국내용' 눈총

박영훈, 세계무대 도약 발판

'반상의 황태자' 박영훈은 후지쓰배를 보야 삼아 활력을 되찾겠다며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다.

올해 국내 무대에서 쇠철한을 꺾고 기성 타이틀 3연패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은 해외 전리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후지쓰배에 이어 이듬해 중한배를 평정했지만 현재까지 국제 기전 우승 기록이 없다. 일각에선 '국내용으로 전락했다'는 설설한 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입장에서 서 있는 박영훈에게 후지쓰배는 예사 대회가 아니다. 그에게 이번 대회는 국제 무대에서 입신(立身)의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호재인 셈이다.

그가 준결승 길목에서 만나는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와는 낮이 익은 데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차례 겨를을 나눈 결과 비록 간발의 차이지만 1집반승을 거뒀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천500만 원(1억 1천만 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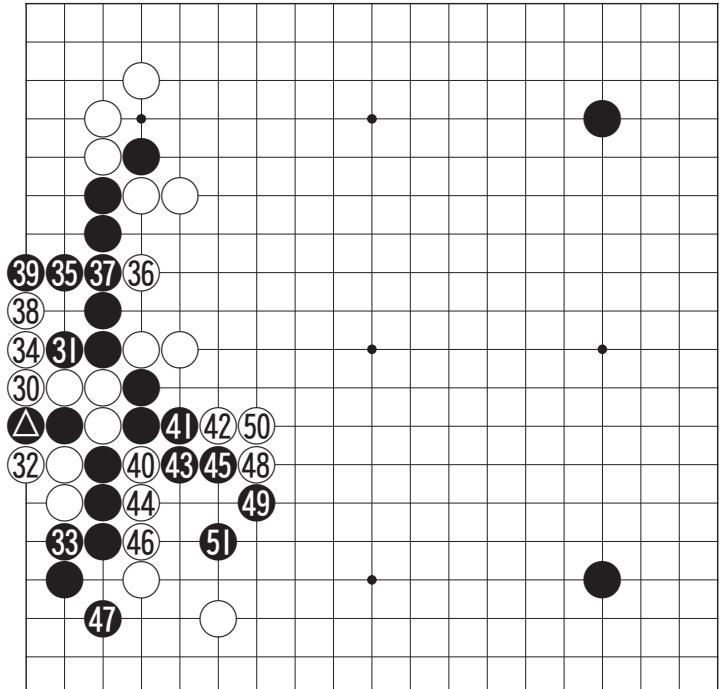
제16회 강원도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이겨 있는 수상전

2국 3보 (30~51)

白 박광주 5단
(포스코)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전을 노리고 있으나 김광식 5단은 하자는대로 39까지 다 받아주고 수상전에 이기고 있다.

백 40으로 굳이 수상전을 한다면 '참고도'의 백 1로 헛혀야 하는데 우선 2로 잊을 때는 끝내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12까지 늘어진 패가 된다. 백은 팻감이 전혀 없는 반면 흑에게는 '가'의 팻감도 있다. 도저히 패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40으로 끊어간 것은 조그만 대가라도 얹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흑 41의 빈棺각이 적절하고 51까지 유유히 중앙으로 돌파해 서는 흑이 일찌기 성공을 거두었다.

때이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백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후 9단·본선 바둑해설위원>

KYOB
교보생명

